

고산 스님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이 월호 스님에게 호가 적혀진 중이를 전달하며 전강의식을 마무리지었다.

“후배 가르칠 자격 있다” 월호 스님에게 호 내리고 전강

하늘에서 하늘거려 내리는 눈도 축하의 기운을 담백 머금었다. 1월 21일 하동 쌍계사 대웅전 앞은 흥겨운 잔치 분위기로 들쭉였다. 쌍계사 대웅전 준공식, 전강식, 건당식, 조실 고산 스님 생신잔치까지 열렸기 때문이다.

대웅전에서 열린 쌍계사 대웅전 준공식에서 고산 스님은 “우리 몸이 닿는 곳마다 밭 가는 곳마다 다 인락국토 극락세계”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또 “항상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바라보면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극락국토고 부처님의 국토 아닌 곳이 없다”며 “천년고찰 하동 쌍계사에 오신 불자들이 한마음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중생은 욕심의 장벽에 가로막혀 극락세계나 천당세계가 보이지 않고 항상 괴로운 일에 허덕이게 됩니다. 한마음으로 밝혀주세요. 앞으로는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항상 웃음의 꽃이 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불만만 가지고 산다면 일생동안 허락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고산 스님의 친절한 법문에 사부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귀를 기울였다. 대설주의보가 내려 오는 날씨를 예상했던 쌍계사 앞마당은 축복처럼 내리는 눈발만이 가끔 흩날릴 뿐 날씨도 개고 햇빛도 밝았다. 날씨마저도 부처님의 가피요, 스님의 법력이었 것 같았다.

“한마음 깨닫고 보면 원만성불도입니다. 지극하게 태양을 보세요. 하늘의 태양이 무슨 사심이 있습니까? 가난한 집도 부자집도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비추고 한결같이 차별 없이 비춥니다. 부처님의 자비함이 일체 중생에게 차별 없이 서로 평등하게 항상 빛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 불소식을 보세요. 불소식을 본다면 고운 사람에게는 전하고 미운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에게도 불소식은 전하고, 이쁜 사람에게도, 음식에도, 양치에도 불소식은 전합니다. 이 불보살의 자비광명의 특성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편하고 행복하게 살수록 더 자비광명의 빛이 늘어납니다.”

불자들에게 성불하는 길을 끊임없이 강조하던 스님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불자들에게 주시시켰다. 항상 착한 마음으로 공심대로 살면서 자기양심을 등한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원만성불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누구도 강조했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일천만 고탈 속에서 세세생생 육도윤회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와 같은 점을 잘 감안해서 우리 불자들은 법당이 호화찬란하게 지어진 법회를 보기에 앞서서 자기 법당을 한 번 보세요. 혹시 눈곱이나 까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웃을 단정히 입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자기 법당을 챙기지 않고 밖에 있는 법당만 살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됩니다. 자기 인법당을 잘 살릴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억!”

스님이 대중을 향해 날린 짧은 쌍계사를 찌뚱 찌뚱 울리며 미망에 젖어있는 불자들을 일깨웠다. 대웅전에서 준공식 행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고산 스님은 대웅전 건너편 팔영루로 발걸음을 옮겼다. 쌍계사 강원 중강 월호 스님에게 전강식과 11명의 건당을 인가하는 건당식이 함께 열리는 자리였다.

“만약에 현재 부처님 경전을 알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을 맑히기를 저 허공과 같이 맑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깨끗한 것은 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극정입니다. 저 허공은 완전히 청정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맑히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뉘느냐.

태양 한결같이 비추듯 부처님 자비 항상 평등 자기 인법당 잘 살피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

계속 욕심을 앞세워서 탐진치 삼독에 해매지 말고 한 생각 쉬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알고자 한다면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라 한 겁니다. 일체망상이나 모든 잡생각을 다 멀리 여의는 것이 바로 성불한 사람의 경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은 항상 수행자나 세상에 사는 모든 중생들이 한 생각 생기는 것을 뒤로 해서 공심대로 행해나간다면 이 사바세계가 극락국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고 가섭존자는 다시 아난존자에게 전하고 그것이 달마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달마조사는 중국으로 건너와서 초조가 돼서 이조 혜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육조 혜능대사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혜명이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연 고산 스님은 “월호 스님에게 전강하는 것이 나의 세 번째 전강”이라며 “월호 스님은 동국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강원에서 강의도 하고 앞으로 모르는 것 수시로 묻고 가르쳐주고 후배를 가르칠 자격이 있기에 강맥을 전하는 것”이라고 월호 스님을 아끼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전강식에서 월호 스님은 “자음당”이라는 호를 고산 스님으로부터 받았다. 전강식과 함께 열린 건당식에서는 두진 스님 등 모두 11명의 스님이 스님에게 호를 받으며 제자로 인가받았다.

오전 동안 줄기차게 진행된 행사의 마무리는 모든 의식이 끝나고 고산 스님의 일흔네 번째 생신상을 마추는 것. 고산 스님은 케이크에 꽂힌 74개의 촛불도 불어 끄고 케이크 커팅도 하는 등 제자 신도들과 함께 서로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하동/글·사진=강지연 기자



고산 스님은 1932년 울주에서 태어나 46년 출가한 스님은 강사, 율사, 선사, 법사로 쌍계사, 석왕사, 해원정사, 연화사 등을 오가며 대중 교화의 한 길을 걸고 있다. 동산 스님을 계사로 48년 사미계, 56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61년에 직지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이후 전국의 제법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고 조계사, 은해사, 쌍계사 주지와 조계종 호계원장,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고산 스님은 <대승기신론 강의본>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선개달음의 길>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부처님 말씀을 순 우리말로 노래한 시집 <마음이 곧 부처다>를 철순을 기념해 출간하기도 했다.



욕심 허물면 마음 편하고 웃음 꽃 필 것

금강약돌 심폐 온열조끼

2007년 설날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을 선물하세요!

심·폐, 오십견, 임파선에 온열 침과 뜸을 동시에...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금강약돌에서는 공기속의 비타민 음이온이 1cc당 1200개까지 발산되며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성이 강한 황토, 바이오 세라믹을 이온 결합한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자기발열을 일으키며 온열, 속성, 자정 등 여러 작용으로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원활, 노폐물과 유해금속을 배출합니다.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기모혈(氣募穴)과 기유혈(氣兪穴)을 금강약돌의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각각의 장부(臟腑)를 활성화 시켜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순환시켜 거드랑이로 모여드는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빠르게 배출하면서 질병의 요인을 지우합니다.

허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침과 뜸의 효과도 동시에 열자리를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심폐, 오십견, 임파선, 거드랑이에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목의 전후 감압선과 뇌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열을 자극하여 허약한 부분(기능저하)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하여 인체의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장부의 혈액에 온열 자극으로 만성적 긴장감에서 오는 피로를 해소, 어깨결림으로 고생하는 오십견 등 질병예방에 효과적!!

- 좌·우측 어깨를 열침효과로 오십견을 해소하여, 거드랑이에 모인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배출하고 임파선을 치유
- 목의 전·후 감압선을 보호하면서 치유
- 혈액을 자극하여 뇌의 혈액순환과 심·폐의 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

판매회: 금강닥터사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